

8 문화

창학 정신 '문화세계의 창조'

경희기록관 관장 김희찬

연재-경희의 유산 ①교시탑

9월부터 경희기록관은 우리신 문과 함께 '경희 유산을 찾아서'를 연재한다. 서울, 국제, 광릉 캠퍼스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 유산은 물론 경희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우리 대학의 역사적 기록물, 경희만의 고유한 정신 유산들을 중심으로, 그들에 관한 역사적 사실, 그 안에 담겨있는 의미, 숨겨진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을 글과 사진으로 소개한다. 1차로 내년 여름까지 연재를 진행하고, 1년간의 연재 결과를 바탕으로 내용과 형식을 보완해 2차 연재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대학의 정문을 들어서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창학이념을 적어놓은 '교시탑(校是塔)'이다. 이 교시탑(일명 창학이념탑)은 1955년 7월 24일 건립된 것으로 흰색의 사각기둥을 중심으로 좌우에 원형 기둥을 배치한 형태인데, 협동·진전·향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탑신부에는 지구 위에 유엔 마크와 '大學'이라는 글자가 결합된 교표가 있고, 그 아래에는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가 새겨져 있다.

'문화세계의 창조'는 '문화세계를 건설하자'라는 의미인데, 경희학원 설립자 미원(美源) 조영식 박사가 저술한 『문화세계의 창조』(1951년 6월 30일)에 그 연원을 두고 있다. 이처럼 '문화세계의 창조'는 개인 저작물로 처음 출발했지만, 점차 그 의미가 확장돼 대학의 창학이념으로 발돋움하게 됐다. 그 결과, 1952년 12월 9일 4년제 대학 승격과 더불어 창학이념으로서의 '문화세계의 창조'가 공식 성문화되기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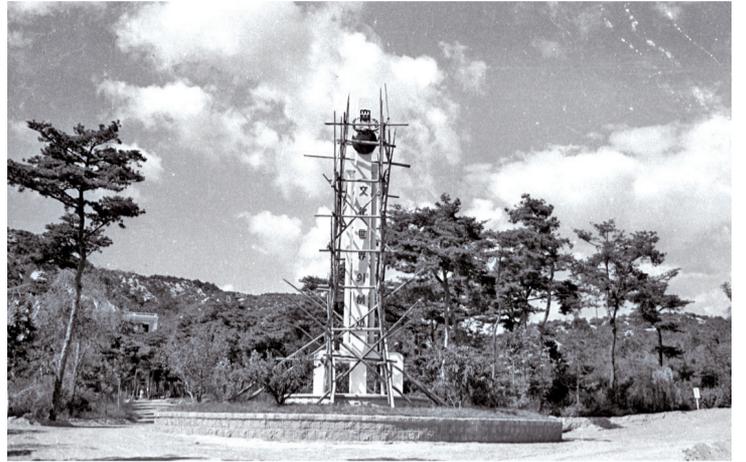
그렇다면 창학이념으로 공표된 '문화세계'란 어떤 사회를 말하는 것일까? 그 단서는 본관 중앙부 삼각형 박공벽(pediment)에 있다. 박공벽을 보면, 중앙의 평화 여신을 중심으로, 좌측은 악기를 연주하는 모습, 체조하는 모습, 그림을 그리는 모습 등이 표현돼 있고, 우측은 지구본을 들고 있는 모습, 바퀴를 굴리고 있는 모습, 망원경을 보고 있는 모습 등이 부조돼 있다.

이 조각상은 좌측이 인류의 정신 문화 탐구를, 우측이 인류의 과학문명 탐구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세계'라는 것은 '문화의 전당, 과학의 세계'라는 의미로, '고차원적인 정신문화와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을 통해 인간의 최고 행복을 구현한 세계'를 말한다. 즉 문화의 전당은 좁은 의미로 정신 문화를 말하는 것인데, 인간에게 가치와 존엄성을 주는 정신문화를 최고도로 발전시켜 진정한 문화인을 양성한다는 것이고, 과학의 세계라는 것은 인간의 행복을 가져다주는 과학문명의 발전에 전력을 다해 보다 넓고 보다 높은 과학 발전을 목적과 사명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문화세계를 창조하려는 것은 대학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창학이념으로 정했던 것이다.

우리의 원대한 이상을 적어놓은 교시탑이 건립된 지도 어느덧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세계적인 대학 건설이라는 목표 아래 국제캠퍼스(1979년), 광릉캠퍼스(1984년) 등 대규모 공간 확충이 이뤄졌다. 그렇지만 새롭게 마련된 캠퍼스에 교시



1955년 완공 직전의 교시탑. 탑신부 상단에는 지구 위에 교표가 결합된 모습이 디자인되었고, 그 아래에 창학이념인 '문화세계의 창조'가 새겨져 있다.



본관 중앙부 박공벽 조각상. '문화세계' 즉, '고차원적인 정신문화와 고도로 발달한 과학문명을 통해 인간의 최고 행복을 구현한 세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사진=경희기록관 제공)

탑이 세워지지 못한 점은 다소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제 대학다운 미래 대학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 우리

의 창학이념을 되새기고 공고히 하는 교시탑이 국제와 광릉 캠퍼스에도 세워지기를 고대해 본다.

아동가족학과 서포터즈 '서리' 5명 '서리풀 청년작가 특별전' 도슨트로 참여

서리수 기자 sooxoosoo@khu.ac.kr

【서울】 아동가족학과 서포터즈 '서리'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 미술관에서 열린 '2025 서리풀 청년작가 특별전-공유미래' 전시회에 도슨트로 참여한다. 해당 전시는 오는 7일까지 진행된다.

아동가족학과와 서초문화재단은 지난 6월 교육 전시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제공하고 협업 기반 창의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당 협약을 통해 창의융합예술 마이크로디그리과정에 따른 프로젝트의 구성원인 김노현(아동가족학 2023), 김단아(아동가족학 2023), 이아현(아동가족학 2021), 정세림(아동가족학 2023), 황규량(아동가족학 2023) 씨가 활동하게 됐다.

협약을 추진한 아동가족학과 서



김단아 씨와 정세림 씨가 아이들과 함께 체험 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서리수 기자)

소정(아동학) 교수는 "지난 학기 아동미술과 아동문학교육 수강생들이 서리풀 청년아트갤러리 전시에 참여해 작가와 직접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청년 작가와 예비 교육 전문가가 소통할 수 있는 지점을 탐색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유 미래

ESD(지속가능발전교육)를 중심으로 전시 기획, 연계 교육, 도슨트 활동 등 공동 교육 과정 개발 및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우리신문은 지난 22일과 24일, 예술의전당을 찾았다. 관람객 앞에서 아동가족학과 학생들은 작품에

대한 필수 정보를 먼저 안내하며 전시회를 시작했다.

두 학생이 세 가지 섹션을 나눠, 한 사람당 약 20분 가량 작품을 설명했다. 이들은 주최 측에서 제공한 기초적인 스크립트를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작품의 배경과 작가의 의도를 소개했다.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와 같은 질문을 던져 관람객의 참여를 유도하기도 했다. 이어 관람객이 궁금해하는 작품에 답하며 추가 설명을 제공했다. 관람객들은 도슨트를 따라 직접 작품을 만져보며 체험했다.

또한, 주말에는 연계 프로그램 'Be...'도 운영한다. 이는 전시 주제 '공유미래'에 맞춰 참가자가 자신만의 미래를 시각화하도록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공유와 미래 카드에 적힌 질문에 각각 답을 적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작가들의 분절과 재구성 기법을 반영해 플라주 북

만들기를 진행했으며 참가자들은 자신이 만든 플라주 북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단아 씨는 "평소 잘 떠올리지 않고 사용하지 않는 단어를 다양한 사람들이 쓰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확장되고 배우는 것이 많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관람객의 언어를 관찰하고 관심사를 유추하는 경험이 전공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덧붙였다.

김노현 씨는 "도슨트 경험이 처음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작가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외우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었다"며 "도슨트 활동을 통해 예술이 생각보다 더 흥미로운 영역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직장 동료와 전시를 찾은 이지은 씨는 "설명이 이해하기 쉬워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관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관람객 박세미 씨는 "도슨트 설명이 없었다면 작품 감상이 난해했을 텐데, 설명을 듣고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고 말했다.

향후 계획에서 교수는 "이번 첫 공식협업을 필두로 시립미술관 협업 전시, 서초구 악기제작 현장 전시 등 후속 프로그램도 이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